

謹賀新年

국가유공자 단체장 신년사

보훈, 민족공동체 생존·번영으로 수렴

광복회장 김원웅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광복회의 2대 회훈은 '민족정기 선양'과 '통일조국 축성'입니다. 전자를 '친일잔재정산 노력'의 바탕이라 한다면, 후자는 외세에 의한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통일운동의 근간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조선의열단 박재혁 의사와 대한광복회 박상진 의사가 순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회는 전국에 세워져 있는 친일인사들의 기념시설을 조사하여 관할 지자체들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친일행적 안내판 설치를 촉구하도록 하는 한편, 서거 100주년이 되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선열들을 선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표절 시비와 친일 등의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애국가를 대신하여,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아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국가(國歌)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를 만드는데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이제는 보훈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모든 보훈의 가치는 '민족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족을 외면하는 호국을 넘어서고 그 의미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 이후 역사의 고비마다 새겨진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은 모두 친일반민족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자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있으며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복회는 신축년 새해에도 독립운동정신을 전환기의 시대정신으로 삼고, 민족·민주단체의 중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남북 간의 민간교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의 가치 존중받는 풍토 위해 노력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김덕남

2021년 신축년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회는 지난 1951년 창설된 이후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애국단체로서 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저는 2013년 회원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설립하고 정신적·심리적 재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훈복지문화대학은 6월에 개강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했고, 상이군경 체육대회도 각 지부별로 소규모로 치러야 했으며, 창작예술제와 베트남 의료지원과 한국전쟁참전 유엔군 전상자 초청행사 등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

우리의 핵심 사업을 위축시켰던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회원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

기를 통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2년 회장직을 맡아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장직을 수행하며 꾸준히 우리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년에도 2021년 보상금 예산 관련 기획재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을 연일 찾아가 실질적인 보상금 5% 인상을 요구하는 등 단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했습니다만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우보만리(牛步萬里),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간다는 사자성어처럼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들은 회원들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고귀한 가치로서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새해에도 쉬지 않고 한걸음씩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발전, 복지증진 위해 슬기롭게 대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 김영수

희망찬 신축년 새해 아침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은 국가도 우리 사회도 그리고 우리 조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조직과 구성원은 역경을 딛고 부단히 앞을 향해 나아갔으며 이것은 바로 우리 회원 모두의 화합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우리 회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수당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이를 인상하는 일이며, 위탁진료 연령 70세 인하, 보훈병원 진료비 90% 감면, 수원 보훈복지타운과 보훈원 입소 등 보훈사각지대 현안을 해소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루지 못한 이러한 문제들을 올해는 관련 법률과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의한 후에 힘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보훈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어려운 여건을 딛고 시도지부를 방문하면서 본회 활동소식을 전하고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특히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일부 회원들이 정성껏 가꾼 농작물이 유실되거나 가옥이 파손된 회원들에게는 본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모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력이 강하고 근심하다는 흰 소처럼 이 난국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조직의 발전과 우리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올해도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이 넘치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든든한 보훈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강길자

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7월부터 5년간 에티오피아 현지 미망인 50명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생필품, 의료용품 등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 작년 추석 명절에는 에티오피아 미망인 손자녀 중 한국유학생 10명에게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기념품을 우리 회의실에서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미망인회가 2020년 9월 제3회 사회공헌활동 우수보훈단체로 선정되어 국가보훈처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수상금 150만원으로 모금에 참가하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목걸이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망인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숙원사

업인 전몰·순직 미망인에 대한 보상금 인상, 자녀 1인에 대한 보상금 승계, 참전유공자 보다 나은 수준의 의료비 감면 등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숙원사업은 전 회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 국가보훈처 정책 브랜드 '든든한 보훈'은 우리 미망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많은 회원들께서 단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새해 뜻하신 바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